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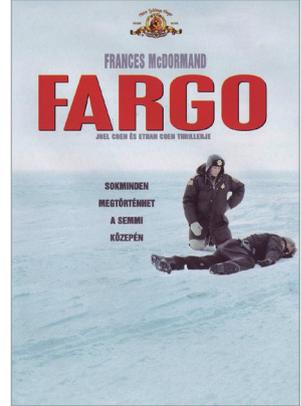
: 미디어 속 직업병

임신과 출산은 큰 축복을 받을 일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몸이 크게 변화를 겪는 일생일대의 사건이기도 하다. 임신 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지만, 출산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산후 갑상선염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글 편집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출산 후 발생하는 '산후 갑상선염'

영화 <파고(1996)>



뛰어난 감각으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임신 7개월 수사관

1987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파고>는 미국 노스 다코타주 파고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빛에 쪼들린 자동차 세일즈맨 제리가 자기 아내를 유괴해 돈 많은 장인으로부터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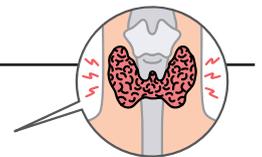
제리는 자동차 수리공으로부터 칼과 계어를 소개받아 그들에게 몸값이 될 8만 달러를 나누기로 하고 아내 납치를 의뢰하면서 회사에서 새로 출고한 자동차까지 빌려준다. 칼과 계어는 제리의 아내를 납치하는데 성공하지만 그녀를 차에 태우고 은신처로 가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검문을 받게 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납치한 진의 아내를 들킬까봐 두려워한 계어가 경찰관을 총으로 쏘게 되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현장을 보게 된 목격자마저 죽이게 된다. 시골 작은 동네 파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경찰 서장인 마지(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녀는 만약 악인 상태에 아침마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남편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 하지만 타고난 수사관인 그녀는 눈 위에 찍힌 칼과 계어의 발자국과 죽은 경찰관의 메모를 토대로 점점 범인의 실체에 다가간다. 아내 납치를 의뢰한 제리, 의뢰받고 범행을 실행하는 칼과 계어, 그리고 범인들을 뒤쫓는 마지.

작은 시골 동네 파고의 하얀 눈밭 위에서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세심하게 잘 그려낸 스릴러 수작인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인공인 마지다. 감독인 조엘 코엔과 실제 부부이기도 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연기한 마지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세심한 관찰과 추리력을 통해 살인사건을 풀어나간다. 재미있는 사실은 촬영 당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실제로 임신 상태였다는 것이다. 임신 상태일 때도 물론 조심해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난 뒤, 산후 관리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 산후 갑상선염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산후 갑상선염

출산 후 3~6개월 동안 몸 안에 면역체계 이상이 발생해 자신의 갑상선 세포를 외부 세포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산후 갑상선염'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항진증(몸 안에 갑상선호르몬이 많아지는 상태) 시기를 지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생겼다가 저절로 회복하기도 한다. 급성 갑상선염과 유사하지만 통증이 없어 '무통증 갑상선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만성 갑상선염 즉,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라 보면 된다. 자가면역 질환이 출산 후에 악화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임신 중에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면역체계 활동이 정상적으로 억제되다가 출산 후 억제되었던 면역체계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출산 후에 잘 발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인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땀,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증상으로 시작한다. 보통 2주에서 2개월 가량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진다. 그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인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과 함께 팔다리가 저리거나 몸이 붓고, 추위를 느낄 수 있다. 이 기간은 대개 1~6개월 지속되다가 대부분 서서히 좋아진다. 보통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문진을 통해 진단한다. 보통 갑상선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증상이 가벼울 경우 관찰을 통해 갑상선호르몬 복용량을 조절한다. 때로는 손발 떨림이나 땀,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베타-차단제를 투여해 치료하기도 한다. 🐦



산후 갑상선염 체크 리스트

- 목이 묵직하게 부은 느낌이다.
-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진다.
- 목소리가 쉰 것처럼 변화가 있다.
- 무기력하고 부쩍 피곤해졌다.
- 산후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된다.
- 갱년기와 유사한 증세가 심하게 나타난다.